

현대 제국주의에 대한 이해

2023년 11월 16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발표 토론회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



<목차>

1. 서론
2. 고전 제국주의론의 쟁점
3. 종속 이론의 평가
4. 달러 헤게모니와 금융제국주의
5. 보론
6. 소결



1. 서론

연구 배경

-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이은 경제위기는 세계적으로 종속과 제국주의라는 오래된 연구 주제가 귀환하게 된 계기.
- 정세적으로도 중미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가 '신냉전'의 전환기로 접어드는 가운데 미국 패권주의 세력의 주도로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전략적인 수준으로 격상되면서 현대 제국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시급성이 커진 실정.
- 전쟁에 반대하고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실천 과제가 제기되는 국면.
- 이론적으로도 종속 문제와 그것의 원인인 제국주의 문제에 대해 기존의 전통적인 이해를 변화된 현실에 맞춰 발전시키는 과제의 중요성 증대.



2. 고전 제국주의론의 쟁점

제국주의 5표지의 개관

-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던 역사적 국면에 형성된 새로운 독점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제국주의라는 옛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그 체제의 핵심 특징이 식민 정책에 있었기 때문. 당시 열강의 정복 정책과 식민 정책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 발생한 변화에 따른 유기적 결과.
- 제국주의의 경제적 기초, 즉 당시 형성되던 새로운 생산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 진술에 담긴 5개의 표지로 요약됨.
- “제국주의는 독점체(표지 1)와 금융자본의 지배(표지 2)가 형성되고, 자본수출이 현저한 의미(표지 3)를 띠게 되며, 국제적인 트러스트에 의한 세계분할이 시작(표지 4)되고, 거대한 자본주의 나라들에 의한 지구상의 모든 영토의 분할이 종결(표지 5)된 발전 단계에 있는 자본주의이다.”

제국주의의 필요조건: 표지 1

- 5개 표지 가운데 독점체의 형성으로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진입한다는 첫 번째 체제 표지는 어떤 나라가 제국주의이기 위한 필요조건. 표지 1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국주의가 될 수 없음. 단, **표지 1을 충분조건으로 해석해선 안 될 것.**
- “이 새로운 특수한 단계의 성격규정에서 결정적인 것은,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독점단계라는 사실”이며, “이 결정적인 특징으로부터” “다른 근본특성들도 결과하는 것.”
- 제국주의는 자본의 집중이 일국의 경계를 넘어 확장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 확장의 근본 동력은 자본 집중, 즉 독점화. 자본 집중은 먼저 국내에서 일어났음. “순전히 지역적이었던 경제단위들을 더욱더 단일한 중심에 종속시키는” 국내적 과정이 선행. 그렇게 단일한 국민적 자본주의 경제가 만들어진 다음 자본 집중 범위의 해외로의 확대.

표지 4와 5

- 세계경제 차원에서 자본 집중이 일어나면서 독점자본으로서는 자국 국가와의 제휴가 필수적인 것이 되었음. 독점자본은 자국 국가를 대리인으로 삼아 국가의 힘을 이용해 세계시장으로의 팽창을 추구.
- 제국주의의 한 가지 불변의 속성은 세계분할의 멈출 수 없는 동기에서 찾아야 할 것. 세계분할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음. 첫 번째는 경제적 분할(표지 4)이고 두 번째는 정치군사적 영토 분할(표지 5).
- 표지 4는 대자본의 국제적 연결과 단절로 세계가 블록화된다는 내용. 대표적인 예는 1907년에 맺어진 미국과 독일 간의 전기시장 분할 협정.
- 현대 제국주의 체제에서는 표지 4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미국 중심 일극 체제에서는 더 이상 세계경제는 자본가 단체 간 경합으로 분할되지 않을 수 있음. 국제기구를 비롯한 자본가 단체들은 실제로는 철저하게 미국 제국주의를 위해 복무하는 지배 도구일 뿐. 미국에 정치적으로 대항하는 나라들을 제외하면 이미 제국주의 체제에 세계경제가 포섭되어 있기 때문.

표지 4와 5

- 브루어는 5표지로 정식화된 제국주의의 일련의 경향이 “동시에 일어난 역사적 우연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지, 아니면 “필연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 본질적인 상호 연관성이 그 경향들 자체 내에 내재”하는지가 중요한데도 제국주의론의 서술은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 Howard and King (1989)의 ‘피상성’ 비판도 같은 맥락.
- 브루어는 또한 첫 번째 표지를 제외하면 “레닌이 묘사한 그 경향들이 그가 예상한 대로 진전되지 않”았고 마지막 표지인 세계의 영토적 분할은 “탈식민지화로 실제로 역전되었다”고도 지적.
- 그러나 적어도 표지 5에 대한 브루어의 부정적 평가는 타당성이 없음. 탈식민지화는 제국주의적 지배의 소멸도 아니었고 식민지 체제의 해소도 아니었기 때문. 제국주의는 (신)식민지의 존재를 전제로 함. “타국 영토의 정치적 지배를 추구하지 않는 제국주의를 상상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
- 브루어의 비판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현대 제국주의가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종속적 동맹 관계로 재편된 효과를 간과한 것.

제국주의 전쟁의 물적 토대

- “한편으로 생산력 발전 및 자본축적과, 다른 한편으로 금융자본의 식민지 및 영향권 분할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형”이 제국주의 전쟁의 물적 토대. 불균등 발전은 식민지 및 영향권의 기존 분할 양상을 불합리한 것으로 만들며 그 경우 제국주의 전쟁은 재분할을 위한 전쟁.
- 제국주의 간 경합의 결과로 절대 강국이 지배하는 일극 체제가 형성되면 그와 같은 전쟁의 물적 토대가 **잠정적으로** 해소됨. 세력 균형이 부분적으로 바뀌더라도 각국 독점자본의 이해를 조율해낼 수 있는 유일한 절대 강자가 존재함.
- 그러나 불균등발전법칙에 의해 제국주의 체제에서 평화는 전쟁의 연속. 제국주의 간 경합이 필연적으로 전쟁을 낳는다는 레닌의 예견에 대한 Howard and King (1989)과 Panitch and Gindin (2004)의 비판은 그런 점에서 부적절.
- 카우츠키는 초제국주의론을 역설하며 세계시장의 평화적 분할로 제국주의 강국들 간에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 그러나 그가 기대했던 국제적 카르텔은 설사 조직되었더라도 필연적으로 붕괴했을 것.

표지 2

-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주식회사들이 창업되는 과정에서 은행이 증권의 발행과 판매를 주도했고 그로 인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음. 은행은 경쟁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일환으로 자본의 집중과 독점화를 적극 지원.
- 레닌에게 있어 금융과두제는 금융자본을 통제하는 지대 향유 계층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을 의미. 당시 은행의 역할은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금융 지배 자본주의에서는 금융 산업 전체가 담당. 산업의 경영 원리가 금융적 가치를 중심으로 변모된 것과도 관련.
- 힐퍼딩은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제휴 관계에서 은행자본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해 산업자본을 통제한다고 진술. 스위지는 이에 대해 "자본주의 발전의 한 과도적 단계를 지속적인 경향으로 잘못 인식"한 것이라고 비판. "은행자본은 전성기를 누린 뒤에 다시 산업자본에 대해 종속적인 위치로" 돌아갔다는 것.

표지 2

- 종전 후 최근까지 자본주의 역사에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패턴이 변화하면서 은행자본보다 내부 자금 조달이 우선시되고 있고 은행이 아닌 자본시장과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커지고 있는 사실. 미국에서 1933년 은행법인 글래스-스티걸 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금산분리.
- 오늘날의 금융세계화가 생산과 금융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점도 문제.
- 은행의 산업 지배를 독점 단계 자본주의의 일반적 원리로 과잉 해석한 힐퍼딩의 오류가 금융자본이라는 용어에 반영되어 있는 점도 어려움을 가중시킴. 공정하게 따진다면 레닌도 그 점에 있어서는 문제의식이 예민하지 않았고 힐퍼딩처럼 독일의 경험을 특권적으로 일반화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
- 스위지는 표지 2의 합리적 핵심이 표지 1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표지 2를 다른 표지로 대체할 것을 주장. 그러나 스위지가 제안한 새 표지 역시 오류로 판단.

표지 2

- 당시 흡슨으로 대표되는 일부 자유주의 개혁가들은 제국주의를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 금리생활자와 금융자본의 동맹에 대해 산업자본과 노동조합의 동맹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흡슨에게 제국주의가 바꿀 수 있는 정책 개념이었다면, 레닌에게 제국주의는 혁명적 전복 없이는 바꿀 수 없는 체제 개념.
- 카우츠키는 제국주의가 아닌 자본주의가 가능하다면서 금융자본의 이해관계는 산업자본의 이해관계와 상반된다고 주장. 산업자본한테는 자유무역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제평화가 유리한 반면 금융자본은 제국주의 정책으로 국가 간 전쟁에 앞장서는 점에서 둘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것.
- 그러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형식적으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고 전자가 후자로 발전하는 개념. 금융자본은 전쟁에 친화적이고 산업자본은 평화에 친화적이라는 이분법도 근거 없음. 결국 사회주의 운동이 산업자본과 연대연합을 구축해 국제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식의 엉뚱한 주장으로 비화.

표지 3

- 자본수출은 차관 및 채권투자와 관련된 대부자본수출과 산업자본수출(기능자본수출)로 구분. 그 중 산업자본수출은 다시 자본참여와 증권투자로 구분. 직접투자는 자본참여로, 포트폴리오 투자(와 기타 투자)는 증권투자(와 대부자본수출)에 해당.
- 영토 분할이 식민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듯 자본수출 역시 식민지로만 향했던 것은 아님. 점점 더 많은 자본수출이 식민지 후진국이 아닌 선진국을 향했음. 기술과 인적자원 사이의 보완성 문제. 그렇다면 자본수출을 제국주의와 식민지 간 관계에 고유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까?
- 21세기 미국의 경우, 직접투자로 해외에 대한 자본수출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포트폴리오 투자로 해외로부터 자금이 유입되는 특징. 전체적으로는 자본수지 흑자. 해외 부문의 미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는 안전자산이면서 준비자산인 재무성증권을 매입하는 것이어서 해외 나라들이 미국에 자본수출을 시행한 결과로 보기는 어려움.

표지 3

- 자본수출에 대한 레닌의 강조는 심지어는 "레닌이 글을 쓰던 당시 상황에도 맞지 않았음. 당시 미국과 러시아는 자본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반대로 유럽 선진국들로부터 자본을 도입하는 나라였던 것.
- 전후 1950년대까지만 보더라도 미국의 자본수출은 군비 지출에 비하면 미미한 정도에 그쳤음. 1930년대 대공황시기 수준. "자본수출의 중요성은 엄청나게 감소했"음. 자본수출은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선진국 간 관계로 나타났음.
- 자본수출 표지가 현대 제국주의론의 한 부분으로 적합한지를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그러나 자본수출은 제국주의 나라가 식민지를 수탈하는 유력한 방법. 규모나 중요성이 시기마다 달라졌다고 해서 자본수출이 제국주의의 기본 속성이 아닌 것처럼 간주할 일은 아니라는 판단.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 제국주의가 보호무역에 더 친화적이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될 것. 종전 후에는 오히려 자유무역이 제국주의 나라가 단골 메뉴처럼 활용하는 노골적인 수탈 수단이 되기도 했음.
-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은 파시스트 국가가 경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중공업 중심으로 자본축적을 주도. 개별 독점자본은 국가의 요구에 복종. 제국주의 열강의 이해관계는 대립을 피할 수 없었고 세력 균형을 통한 공존은 불가능했음.
- 심지어는 전시에 같은 연합군 진영 내에서도 열강은 서로 대립. 영국과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두고 경합. 영국이 미국에 무기 대금을 치르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해외 투자를 청산해야 한다는 결론. 영국이 미국에 복종.
- 경쟁하는 자본가들의 집단이 국가를 이용해 세계를 영토적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전쟁 수행 능력이 중요. 그것이 바로 제국주의 국가가 경제의 군사화, 군국주의로 나아갔던 배경.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 미국은 종전 후 자신의 손에 들어온 지구 절반을 지키기 위해 군비 지출 확대. 내전 개입의 역사적 시발점은 한국전쟁.
- 현대 제국주의에서 경제의 군사화는 지속. 현대 제국주의의 실체는 미국 국가 독점자본주의이고, 다시 그것의 본령은 군수독점자본과 국가기구 및 군부가 유착되어 미국의 군사적 팽창주의를 주도하는 군산복합체.
- 현대 제국주의에는 고전 제국주의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설명이 힘든 특징들이 있음. 전후 수십 년간 자본주의 열강은 직접적 식민지배로부터 후퇴. 서방세계에서 제국주의 열강 간 갈등은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의 뜻을 거슬렀던 1956년 수에즈 전쟁이 사실상 마지막이었음.
- 구식민주주의의 역사적 퇴장은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 성립 및 사회주의와 비동맹 중립 세력의 대두를 주요 배경으로 했음. 그러나 새로 형성된 신식민지 체제는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 대한 제국주의 열강의 적응형태"였음.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 자본주의 황금기 동안 과거 제국주의 열강들은 식민지를 잃고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성장과 가장 평등한 분배를 동시에 달성. 고전 제국주의론으로 그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
- 그러나 전후 황금기의 원인을 케인스주의와 복지국가의 성공에서 찾는 것은 일면적일 수 있음. 서방의 사민주의나 복지국가란 것도 결국 신식민지 수탈과 그것을 가능케 했던 미국의 군사적 팽창주의에 힘입은 것.
- 레닌은 "자본수출은 그것을 수입하는 나라의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그 발전을 크게 가속화"시킨다고 주장. 그러나 이와 같은 고전 제국주의론의 주장은 실망스러운 것. 제국주의에 대한 경제적 종속은, 과거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 오늘날 겪는 경제적 낙후상태를 야기했다는 인식이 더 설득력 있다는 판단.



3. 종속 이론의 평가

종속 이론의 문제의식

-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체와 후퇴를 경험하면서 경제종속에 대한 고전 제국주의론과는 분명 다른 설명이 필요해졌음. 중심부 제국주의 나라가 아니라 주변부의 종속된 식민지 나라의 시선에서 고전 제국주의론을 재해석하려는 움직임. → 종속 이론의 대두.
- 저발전국가들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이 선진국들의 과거 역사와는 크게 달라 선진국들의 경험으로부터 저발전국가의 미래를 유추할 수는 없다는 주장. 그렇게 (신)식민지 나라의 제국주의에 대한 종속이 저발전으로 귀결되고 만다는 인식은 바란 이후 종속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시각으로 자리 잡았음.
- 종속 이론의 기본 입장은 주변부 나라에서는 자립적인 완전한 산업화가 불가능하다는 주장. 문제를 정치적으로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신)식민지의 후진적 경제구조를 개선시킬 의향이 없는 지주계급, 매판자본 등 국내 기득권 세력과 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긴밀한 유착.

종속 이론의 문제의식

- 종속이론은 경제적 자립을 강조. 그러나 왜 해외 도입 기술이나 수출주도형 산업화를 통해서도 자립적 민족자본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인지 해명이 안 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음.
- 과거에는 자본주의 발전이 중심부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조건을 창출했지만 이제는 자본주의 발전의 결여가 주변부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조건을 창출한다는 주장.
- (신)식민지 사회에서 제국주의 및 그 유착 기득권 세력에 맞서는 정치적 대항력은 '민족국가'와 '민족해방'의 이름으로 조직. 민족국가는 원래 자본가계급이 봉건적 질서에 도전하면서 영토 내적으로 경제를 통합하고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내세운 이데올로기였는데 그 성격에 질적인 변화가 초래된 결과.
- 다만 '종속 = 저발전'의 등식이 현실에서 깨진 오늘의 관점에서 그간에 민족주의적 반대를 조직해온 물질적 기초는 일정 부분 변화. 기존에 종속 = 저발전 등식이 반제국주의 세력과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세력 간에 일정한 타협을 가능케 했던 반면, 그 등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되면서 그 두 세력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토대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성장의 정치경제학

- 바란은 독점자본주의의 정체 경향으로 유효수요 부족이 만성화하면서 지출되지 못하고 쌓인 저축인 '경제잉여'가 결국 낭비와 비생산적 경제활동, 군비 지출 확대로 이어진다고 주장.
- 잉여의 재분배는 세계적 차원에서 불평등을 낳는 구조적 원인. 후진국에서는 투자에 이용할 수 있는 경제잉여의 규모 자체가 작고 선진국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제발전을 떠받칠만한 수준이 못 된다고 지적.
- 자본주의가 일정 단계까지는 성장을 추진하는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이미 그런 단계는 넘어섰으며 따라서 선진국의 독점자본이 선진국과 저발전국가 모두에게 정체와 후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라틴아메리카 구조주의

- 주변부 나라는 중심부 나라와의 교역에 있어 수출품이 수입품보다 상대가격이 저렴해져 교역조건의 악화를 겪게 된다는 프레비시 가설. 중심부 나라의 제조업 생산물은 독과점 기업이 공급하는 반면 주변부 나라의 1차 산물은 영세 사업자들이 주로 공급하니까 주변부 입장에서는 국제시장에서의 상대가격이 불리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
-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로 미화되어온 중심부와의 연결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중심부의 자본수출과 불평등교환에 따라 잉여가 지속적으로 외부로 유출되므로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고 저발전의 현실을 타개할 수도 없다는 전망.
- 예를 들어 Caraballo and Jiang (2016)에서는 1995년-2008년 기간 국제투입산출모형 분석을 통해 수출품 가치에 있어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 몫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분석하면서 그 원인을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해외로의 가치 유출에서 찾았음.

'종속 = 저발전' 등식의 검토

- 종속 이론의 문제점은 '종속 = 저발전' 등식을 고수하는 것. 제국주의와 종속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그 등식의 논리를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함.
- 양적 기준으로는 성장했지만 경제적, 정치군사적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가 있음. 주변부 경제에서 자주적 발전의 길이 아예 막혀 있다고 단정부터 할 일도 아님. 경제적 자립이 필연적으로 양적 성장을 포기하는 길은 아닐 것.
- 종속 이론에 대한 흔한 비판들도 대개는 '종속 = 저발전' 등식을 고수하는 잘못된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양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주변부 나라가 출현했다면 그런 경제는 종속이 해소된 것이고 따라서 식민지가 더 이상 아니라는 식의 비판이 그와 같은 사례. 산업화 진전이 곧 종속 해소인가? 아니라는 점!
- Dos Santos (1970)의 종속 정의: "어떤 나라의 경제가 다른 나라 경제의 발전과 확장에 따라 조건 지어지는(conditioned) 상황"

종속 개념

-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 경제에 대한 의존 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음. 그렇다면 Dos Santos의 종속 정의에 따르면 전 세계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지 않은 나라는 없는 셈. 이와 같이 '경제적 종속'만 따지면 그것은 제국주의-식민지의 양국 간 관계를 필수적인 전제로 삼는 관계는 아니라고 해야 할 것.
-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와 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 사이에 가치 이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오늘날 제국주의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충분하다는 시각이 존재. 불평등 교환(unequal exchange)에 대한 국제가치론 자체가 바로 제국주의론이라는 주장.
- 그러나 그것은 제국주의론을 국제가치론으로 왜소화시키는 것. 그것은 또한 레닌의 제국주의 5표지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정반대. 제국주의와 식민지 간 관계가 결국 정치군사적 지배-종속 관계로 현상한다는 것이 표지 5의 결론적 의의. 그런데 국제가치론에 따라 가치 이전 관계에만 주목하면 표지 체계의 총체적 이해는 부인되고 마는 것.

종속 개념

- 더욱이 국제가치론 분석에서는 어떤 나라든 일부 나라들에 대해서는 종속국 이면서 동시에 다른 일부 나라들에 대해서는 제국주의 나라가 됨. 그런 접근 법은 반제국주의라는 실천 과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
- '경제적 제국주의'는 체계적인 가치 이전으로 잉여가 중심으로 유출되는 체제. 하지만 제국주의 나라가 아닌 나라의 보통의 교역 관계에서도 가치 이전은 일어날 수 있음.
- 만약 제국주의와 (신)식민지 사이에서 잉여 유출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수탈의 사례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그러나 제국주의와 (신)식민지 관계가 아닌 두 나라 사이에서 가치 이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두고 경제적 수탈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노릇.
- 제국주의는 (신)식민지와 관계 속에서 정의될 때에만 그 의미가 온전히 회복되는 개념. 제국주의는 국가 권력이 해외 다른 민족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므로 순수하게 경제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사실.

종속 개념

- 한 나라를 놓고 무역 관계 전체에 걸쳐 가치 이전의 순 합계를 계산한 다음 그것이 양(+)인지 음(-)인지 따지는 것은 그 나라의 세계경제에 있어 상대적 위치를 보여주는 것일 뿐. 그런 숫자를 기준으로 해당 나라가 제국주의 나라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접근법.
- 특정 나라의 (신)식민지성을 가치 순수출을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도 아닌 것.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경제적 종속을 그와 같은 접근법으로 다루어 왔지만 애초부터 그런 방식으로 분석될 수 있는 관계는 제국주의-(신)식민지 관계와는 거리가 먼 전혀 다른 것이었음.
- 독점자본의 국내적 영향력이 지배적이고 자본 순수출국이면서 자본 순수출에 따른 이득이 양(+)인 나라여도 제국주의 나라가 아닐 수 있음. 표지 1은 제국주의의 필요조건이었을 뿐이고, 표지 3은 부분적 정정이 필요한 하나의 표지일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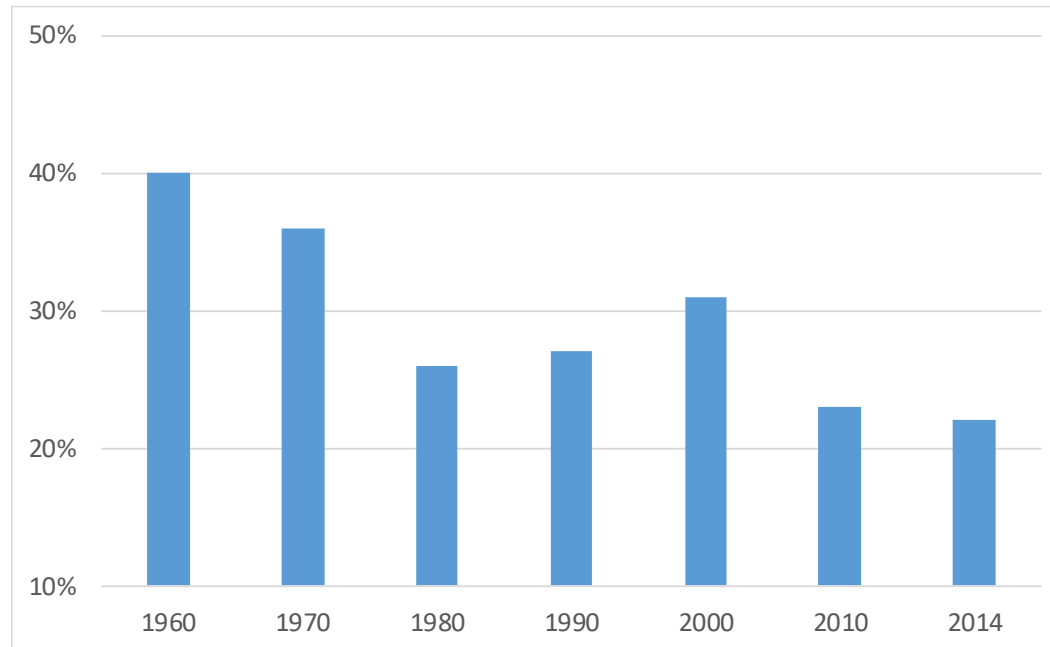
종속 개념

- 제국주의에 대해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경제적 관계에만 주목하면 어떤 나라도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인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주의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됨. 그러나 제국주의는 (신)식민지와 관계에서만 정의되는 개념이며 제국주의이기도 하고 식민지이기도 한 그런 상대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것.
- 어떤 나라가 제국주의 나라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먼저 그 나라의 영향력 하에 있는 (신)식민지 나라가 존재하는지부터 따지는 것이 순서. 단 그 과정에서는 고전 제국주의론의 표지 다섯 개 중에 1표지와 5표지를 중심에 놓되, 특정 표지에 집착하지 말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제국주의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하는 편이 옳음.



4. 달러 헤게모니와 금융제국주의

경제적 균형의 변화



- 미국의 경제적 위상 하락.
- 미국의 산출량은 1945년에 세계 산출량의 절반에 달했는데 1980년대가 되면 그 수치가 1/4 정도로 줄어들었음.

경제적 균형의 변화

- 초국적 기업은 생산의 세계화를 상징. 자본주의적 생산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편되었음.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으면서 세계화는 가속 페달. 20세기의 마지막 20년간에는 과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세계화 흐름 확대.
- 세계화로 인해 국가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자본축적의 국민경제적 차원이 미약해진 것은 아니었음. 세계화 과정에서 초국적 독점자본들은 제국주의 국가의 지원을 통해 성장.
- 경제적 균형의 변화는 미국의 절대 패권에 상처. 베트남전 패배와 이어진 데탕트 국면의 군비 축소, 달러 헤게모니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브레튼 우즈 체제의 포기도 같은 영향.
-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의 쌍둥이 적자는 누적된 군비 지출에 기인. 쌍둥이 적자는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웠음. 아시아와 유럽의 투자자들이 미국에 자금을 빌려주고 미국은 그 자금을 군비 지출과 상품 수입에 쓰는 패턴.

경제적 균형의 변화

- 일각에서는 그와 같은 자금 흐름이 급격히 반전될 때 미국 경제가 궁지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미국에 투자하는 일부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달러가치가 하락할 것이고 그것이 트리거가 되어 해외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할 수도 있으리라는 시나리오.
- 실제로도 그와 같은 취약해 보이는 균형이 달러 체제의 논리. 그러나 그 균형의 안정성에 대한 판단은 어려운 문제.
- 지금 미국은 경제적 지배력이 어느 때보다도 취약함. 그런데 미국은 그럴수록 더욱더 맹렬히 전쟁을 추구하고 내전에 개입. 패권 유지를 위한 사실상 남은 유일한 수단이 군사적 수단이기 때문.
-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미국 제국주의의 호전성과 군국주의적 성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는 흐름. 탈냉전 이후 세계화 흐름 속에서도 미국이 개입한 군사적 충돌의 사례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음.

고전 제국주의론 폐기 주장의 문제점

- 현대 제국주의는 전체 지구가 실질적으로 자본주의에 의해 지배된 조건에서의 제국주의인 점에서 레닌이 분석했던 제국주의와는 엄연히 다름. 반제국주의의 과제는 본격적으로 반자본주의의 과제와 직결.
- 하지만 오늘날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세계적 보편화”로만 파악하고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이미 그 방법론적·역사적 한계가 분명해”졌기에 폐기해야 한다는 일각의 시각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
-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는 이를테면 표지 5와 연관된 정치군사적 식민지배와 민족자결의 현실 문제에 대해 마치 그런 문제 자체가 없거나 사라진 것처럼 주관적으로 해소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

종이 금의 시대: 미국 재무성증권 본위 체제의 확립

- 1971년 미국이 금 태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국제통화체제는 사실상 '미국 재무성증권 본위제(the Treasury-bill standard)'로 바뀌었음. 달라진 국제통화체제에서는 과거의 금을 대신해 미국 연방정부의 빚 증서가 준비자산의 역할. 허드슨의 금융제국주의론.
- 각국 중앙은행이 준비자산으로 재무성증권을 쌓아가자 미국은 해외 자원이나 기업을 얼마든지 제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음. 그 대가로 달러를 넘치게 공급한 다음, 재무성증권을 발행해서 달러를 회수하면 그만이었음.
-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자산을 축적해야 하는 현실은 사실상 미국이 달러 발행의 독점적 권한을 이용해 전 세계로부터 세금을 걷어가는 효과.
- 이와 같이 강력한 금융 권력에 기초해 미국은 국제관계에서 편파적 혜택을 누려왔음. 최근에도 군사 관련 기술이나 첨단 기술 영역에서는 오직 자국만 독점적 지대를 향유하겠다고 국제적 분업의 재편을 밀어붙이는 상황.

미국 금융제국주의의 특징

- 역설적이게도 오늘까지 미국의 금융제국주의가 확립되고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은 1970년대 이후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세계적으로 달러 공급이 넘쳐나면서부터였음.
- 미국이 세계경제를 수탈하는 새로운 금융적 방식은 국제통화체제를 활용하는 것이었음. 이른바 금융제국주의가 그것.
- 세계 각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로 달러가 유입되면 그 달러로 재무성증권을 매입해 준비자산으로 보유. 미국이 흥청망청 무역 적자로 자금이 모자라게 되자 세계 곳곳에서 저축을 모아 미국에 가져다 바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 각국 중앙은행의 재무성증권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도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게 되었음. 미국은 원하는 만큼 해외 상품을 수입해 소비해도 괜찮았고 그렇게 빚이 늘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음. 그것이 바로 금융제국주의에 기초한 미국의 무임승차임.

경제 지배의 모습

- 미국의 세계경제 지배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첫 번째 방향은 순 채무국에 대한 수탈. 달러가 부족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채권국의 모습으로 IMF 같은 국제기구를 활용해 워싱턴 컨센서스를 강요하는 전통적인 방식.
- 그 경우 순 채무국들은 어쩔 수 없이 긴축으로 내몰림. 자국의 자립적 산업화 중단. 공공부문 축소와 민영화 강제. 구조조정과 매각이 자연스러운 수순. 결국 미국에 근거를 둔 초국적 자본이 금융 투자자로서 광물자원 개발권과 공공 인프라를 인수. 긴축과 함께 미국에 대한 산업적 종속을 사실상 강제.
- 두 번째 방향은 달러가 넘쳐나는 순 채권국과 전에 없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순 채권국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재무성증권 매입에 쓰지 않으면 안 되도록 얹매어 있음. 구조화된 강제 저축을 수행하며 그 저축을 홀라당 미국에 갖다 바치는 형국. 자칫 여러 나라들이 재무성증권 매입을 중단하기라도 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준비자산의 가치가 영향을 받으므로 그로 인한 피해도 걱정

경제 지배의 모습

- 미국계 금융자본이 주연을 맡은 새로운 금융과두제의 등장. 미국 자본의 진출로 금융 부문이 팽창하면서 미국계 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한 단기주의와 고배당, 자기주식 매입에 따른 유보재원 소진이 문제로 부각.
- 다양한 외관을 띄며 진행된 해외의 민영화는 미국 금융 부문이 해외에서 독점적 지대를 '뺏아먹는' 것을 도왔음. 그 과정에서 해외 나라는 자국 경제 내에 고비용 구조가 고착되는 것을 감수해야 했음.
- 요컨대 미국의 금융제국주의는 제3세계 순 채무국인 신흥국들에 대해서는 자립적 발전의 전망을 가로막고 있으며 미국에 대해 순 채권국인 산업경제 강국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저축해둔 금융 재원을 구조적으로 흡인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 있음.
- 그렇게 빨아들인 다른 나라의 저축은 결과적으로 제국의 군비 지출을 돕고 금융 지배 자본주의의 상부구조를 공고히 해 자산 가격 거품을 곳곳에 만들어내고 있음.

자본수출? 자본수지 흑자?

- “자본수출을 제국주의의 핵심 특징으로 설정하는 레닌의 제국주의론으로 오늘 세계 최대의 자본수입국인 미국 제국주의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실제로 자본수지 흑자는 자본수출보다 자본도입이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진다는 의미.
- 그러나 달러 리사이클링에서 해외 중앙은행은 안전한 준비자산 확보를 위해 수익률이 낮은 미국 재무성증권에 투자하는 반면, 미국의 자본수출은 해외 고수익성 자산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총합 차원에서는 자본수출의 정반대 현상이 지배적인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서도 미국 금융자본과 자산계급의 지대 향유가 가능.
- 따라서 미국이 자본수지 흑자국이라고 해서 자본수출이 중요하지 않은 현상이 된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의미를 잃은 것도 아님.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란

- 달러 리사이클링의 현 체제는 위험 요인을 내포.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넘쳐나게 된 달러는 금융시장과 상품시장에서 투기를 부추기고 자산 가격 버블을 키울 위험이 있음. 이는 세계 도처에서 크고 작은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음. 금융 지배 자본주의의 파괴적 영향.
- 다만 미국이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든 현 체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비용이 제법 드는 선택. 이와 관련해 달러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떠받치는 힘이 있음. 첫 번째는 금융위기. 금융위기는 설령 위기의 진원지가 미국 월가인 경우라도 발작처럼 달러가치를 높여왔음. 미 연방 재무성증권 본위제가 가능했던 것도 그런 이유.
-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른다는 이유로 금리를 급격히 인상.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치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었음.
- 세 번째는 미국을 제외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외환시장 개입. 자국의 수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달러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노심초사.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란

- 미국 밖 해외 나라들의 경제성장은 교역의 증가를 수반하고 그 과정에서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반드시 늘어남. 그 역시 달러가치를 떠받치는 요인.
- 쌍둥이 적자는 미국 국채가 금을 대신해 준비자산으로 확립된 현 국제통화체제의 내재적 작동 원리에 해당함. 분명한 사실은, 쌍둥이 적자처럼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동시에 체제의 작동 원리가 되고 있는 점에서 현 체제는 진정 모순적인 것이라는 것.
- 그간에 체제의 외관상 안정적 재생산은 모순적인 그 체제가 결국 군산복합체와 월가 금융자본을 지원하는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에 궁극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패권이 유지되는 한에서는 쌍둥이 적자가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만일 패권을 지탱해온 요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모든 재앙은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도 있을 것임.

탈산업화와 재산업화

- 그동안 미국에서는 생산 기지의 해외 이전이 점점 더 뚜렷하게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아왔음. 자본수출의 이면으로 국내에서는 금융화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음. 미국은 군수산업을 제외하면 점점 더 많은 제조업 제품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음.
- 그러나 최근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전략 산업 영역에서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의 생산 기지를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고 종속적 동맹국들의 생산 거점 또한 미국 내로 이전시키는 정책을 추진.
- 제국주의 표지 가운데 하나인 자본수출이 아니라 그것의 정반대 현상이 지금 제국주의 나라 미국의 주도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임. 이와 같은 최근 흐름이 새로운 축적 양식의 한 단면인지, 아니면 미국의 과도기적인 세계경제 재편 전략의 일환인지 등을 따져야 함.

탈산업화와 재산업화

-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의 최근 정책 변화를 두고 제국주의 체제 성격에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오해할 일은 아님. 최근 들어 미국 정부가 다시 정치적 힘을 이용해 첨단 전략 부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님. 단지 이번에는 상대가 소련이 아니고 중국이라는 것뿐. 기존 미국 산업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예측 가능한 변화.
- 진짜 문제는 그와 같은 미국 산업정책이 가진 제국주의적 성격. 미국이 자본 수출 대신에 거꾸로 타국의 생산 기지를 자국 내로 집중시키려는 것도 변화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모습의 제국주의적 수탈. 그것이 종속국의 국내 산업 기반과 일자리를 제국의 중심으로 빨아들이는 것이기 때문.
-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이어지는 현재의 제조업 부흥 전략 자체는 미국 금융자본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는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 제조업 부흥은 기득권을 대표하는 금융자본 세력에 의해 제한된 규모로만 허용될 공산. 미국 금융제국주의가 품고 있는 내적 모순이 더욱 격화되는 현실이 그 과정에서 드러날 뿐.

금융제국주의론의 평가

- 금융화로 상징되는 변화된 경제 환경과 금융 지배 자본주의의 체제 동역학을 제국주의 분석의 중심 주제로 설정한 점에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 진보진영 내에서는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이후 금융자본의 운동을 중심으로 미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헤게모니가 재구축되는 흐름을 정확히 읽어낸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
- 경제적 지대를 수탈하는 계층이 금융제국주의를 떠받치는 국가장치 배후의 지배세력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점도 주목.
-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허드슨 논의에서 강점은 또한 약점. 생산과정에서의 착취 문제가 논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미국 자본주의를 사회구성체 단위로 분석하지 않는 약점.

금융제국주의론의 평가

- 허드슨 논의의 그와 같은 한계는 다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간 대립을 강조하면서 바람직한 발전 전략에 있어 전자를 옹호하고 후자를 부정하는 점에서도 발견됨.
- 왜냐하면 그것은 금융자본의 지배에 맞서는 산업자본과 노동자계급 간 연대 연합 주장의 정당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서 홉슨이나 카우츠키에게서 발견된 편향을 그대로 답습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
- 더욱이 허드슨은 사회주의와 산업자본주의의 구분보다도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의 구분을 강조하는 경향.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적어도 노동자계급의 관점은 될 수 없음.
- 레닌이나 바란은 제국주의를 전복시키는 정치의 기획에 있어 (비록 그 내용은 달랐지만) 반자본주의의 관점을 명확히 했음. 그러나 허드슨은 그렇지 못했음. 그 결과는 산업자본주의의 회복이라는 복고적이고 개량주의적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금융제국주의론의 평가

- 허드슨 논의에서 발견되는 계급적 관점의 부재는 분석 방법론에서도 확인됨. 특징적으로 허드슨은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주류경제학 담론을 미국 금융제국주의의 체제 원리 수준으로 격상시켰음.
- 설명 틀 자체가 방법론적으로 주류경제학의 그것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허드슨의 논의에서는 금융제국주의 체제가 항구적으로 작동 가능한 것처럼 이해되기 쉬움.
- 허드슨 논의로는 체제의 이행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재무성증권 본위제의 이행 내지는 체제 전환이 가능할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
- 산업과 금융 간에 잘못된 대당을 설정한 탓에 노동자계급의 주체로서의 관점이 체제 전환의 동학에 반영되기 어려운 점.



5. 토론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론

- 네그리와 하트는 국민국가의 틀에 갇혀 있던 제국주의는 이제 국민국가의 틀에서 벗어난 '제국'으로 대체되었다고 주장. 더 이상 제국은 국민국가의 팽창을 통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포스트모더니즘 시각.
- 고전 제국주의론의 시각에서 세계화는 미국 제국주의의 지배가 확장되는 과정으로 파악됨. 그러나 저자들은 그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음. 그들은 심지어 미국을 제국의 중심으로 보지도 않고 미국 제국주의란 없다고 주장. 그들은 민족이나 민족국가도 진보정치에서 버려져야 하는 개념에 불과하다고 비난.
- 그러나 그와 같은 네그리와 하트의 초현실적 인식은 지적 유희일 뿐임. 제국주의의 역사 일체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국가 개념을 해체하고 미국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눈앞의 현실마저 부정하는 점에서 그들의 제국론은 실천적으로는 오히려 반동적.
- 저자들은 '다중'이라는 정체 모를 변혁 주체가 끝없이 이주하고 출몰하면서 제국에 대항해 새로운 공간을 구성할 것이라고 낙관하지만, 그것은 익명의 네티즌들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계급 분석이 불가능한 유령일 뿐.

하비의 신제국주의론

- 자본축적의 동학과 영토적 경쟁을 종합적으로 사고하면서 미국의 힘이 성장해온 역사를 고찰.
- 과거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통해 축적 위기를 해소했듯이, 신자유주의는 자신의 외부에 있는 비자본주의 부문 및 자신의 내부에서 자본 관계에 포섭되지 않은 부문을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방식(='탈취에 의한 축적')으로 축적 위기에 대응한다고 주장.
- 그러나 탈취에 의한 축적은 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이 아니라 착취의 결과로 생산된 가치를 재분배하는 과정. 문제의 근원이 탈취가 아닌 노동 착취에 따른 축적 자체에 있다면 하비의 주장은 반자본주의 관점이 불분명한 것.
- 하비는 뉴딜 개혁을 통해 자본주의가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 그것은 정치적으로 미국 민주당의 제국주의에 대한 지지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음. 결국 그 문제는 그가 저항 운동의 주체로서 노동계급 중심성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게 되는 한계로 이어졌다는 평가.



6. 소결

현대 제국주의의 특징들

- 첫째, 독점자본은 늘 자신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분업을 신식민지에 강요함. 종속의 형태는 직접투자와 차관 제공, 포트폴리오 투자를 비롯한 자본수출의 다양한 방식과 연결됨. 그것이 곧 개별 신식민지 나라가 제국주의 체제에 편입되는 방식이기도 함.
- 둘째, 제국주의는 열강들 사이의 자체 모순을 재생산함. 미국이 유일 패권 국가인 단극 체제라고는 하지만, 세력권의 재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잠재되어 있음. 미국 제국주의는 군산복합체와 초국적 금융자본의 결합에 기초해 있는데 군사적으로는 동맹국들을 압도하지만 경제적 지배력 측면에서는 한계를 노정하는 상태.

현대 제국주의의 특징들

- 셋째, 미국은 '종이 금'을 만들어내는 특권에 기초해 재무성증권 본위제라는 전무후무한 국제통화체제를 확립했음. 그와 같은 금융제국주의 체제 하에서 미국은 예외적이고 비대칭적인 방식으로 세계경제를 대상으로 경제적 수탈을 자행. 체제는 미국의 금융적 지대 향유 계층의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되며, 자국 내 제조업 공동화를 배경으로 해외 산업자본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넷째, 미국 제국주의는 군사적 지배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패권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세계는 신냉전이라는 전환을 마주하고 있음. 미국의 패권이 점점 더 폭압적 수단에 의존하면서 신식민지 나라들에서는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끝]